



인쇄기술의 새로운 도전 가늠하는 IGAS 2015 디지털 라벨 및 패키지 성장세 다시 한 번 확인

세계 4대 인쇄 기자재 전시회 중 하나인 IGAS는 최신 인쇄, 디지털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는 국제 전시회다. 현재 인쇄산업의 다양한 솔루션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인쇄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자리로 평가받는다. 이번 IGAS 2015는 'Print + Innovation, 인쇄 기술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을 목표로 최신 기술과 솔루션, 인쇄 산업의 미래 전망으로 이어질 혁신의 가능성을 글로벌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었다.

글 | 유영훈 (성도GL B팀 과장)

라벨 포함 패키지 인쇄, 미래 성장 견인

IGAS 2015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쇄산업의 성장세가 정체 또는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프린터를 이용한 라벨, 패키지 인쇄 부문의 성장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물론 아직까지 전통 상업인쇄 부문에 비하면 패키지 인쇄 규모는 작으나 앞으로 인쇄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분야는 라벨인쇄가 포함된 패키지 인쇄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다.

관련 세미나 및 다양한 현장 시연

인쇄환경 변화는 성도GL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후지필름이 소개한 솔루션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FFGS(FujiFilm Global Graphic System)는 IGAS 2015를 통

해 전체적인 솔루션을 소개했다. 부스를 크게 상업 및 출판 인쇄 구역(Commercial and publishing printing zone), 패키지 인쇄 구역(Package printing zone), 워크플로 구역(Workflow zone)으로 구성해 관련 솔루션 세미나 개최하고, 다양한 현장 시연을 진행했다. 아울러 패키지와 디지털 인쇄시스템이 전시된 새로운 쇼룸(FFGS Wing City) 방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재료 인건비 절감·생산성 향상 통한 이익 증대

상업 및 출판 인쇄 구역은 크게 오프셋 인쇄의 SUPERIA 솔루션과 디지털 인쇄기의 Jet Press 720 및 Acuity LED1600 II가 전시됐다. CTP 판재, 시스템, XMF 워크플로, 인쇄부자재 등 후지필름 최고의 제품으로 구성된 인쇄솔루션 SUPERIA는 재료(잉크, 종이

등),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 증대라는 이점을 강조해 수익성 향상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량 인쇄시장에서 경쟁력 향상과 다양한 디지털 인쇄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고객에게 적합한 매엽방식의 Jet press 720S와 기존 모델 대비 생산성(33m²/h)과 품질이 향상된 LED UV 잉크젯 프린터 Acuity LED1600 II가 처음 소개됐다. Acuity LED 1600II는 화이트, 바니시 잉크 지원 및 3 레이어 인쇄가 가능해 다양한 소재에 다채로운 기법의 연출로 고부가가치 인쇄가 가능하다.

플렉소 인쇄의 연포장 분야 가능성 타진

패키지 인쇄 구역에서는 패키지 분야용 솔루션 'GRANPACKS'가 소개됐다. 북미, 유럽시장과는 달리 아시아 시장에서는 플렉소 인쇄 시장이 크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인쇄시장은 상당히 높은 인쇄품질을 추구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고품질을 요구하는 고객 사이에서 플렉소 인쇄 품질은 그라비아 인쇄에 비해 떨어진다는 선입견이 널리 퍼져 있어 플렉소 인쇄의 도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플렉소 인쇄 품질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좋아졌고, 인쇄품질이 좋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연포장의 플렉소 인쇄화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지필름 또한 이런 성장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판재부터 제판기, 교정기, 인쇄기 및 각종 기자재까지 패키지 제작에 필요한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고자 제품 라인업을 구성했다. 플렉소 CTP 'FLENEX DLE'는 제판 공정이 기존의 방식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레이저 조각, 세척, 건조만으로 제판이 완료돼 UV노광기 및 프로세스, 드라이어 등의 부대 설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판 공정의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솔루션 구축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후지필름은 독일 플렉소 인쇄기 제조사인 윈드모엘러&호에술러(Windmoeller&Hoelscher; W&H)와 협업을 통해 일본시장에 플렉소 인쇄기를 공급하고 있다.



세계 4대 인쇄 기자재 전시회 중 하나인 IGAS가 지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됐다.

디지털 공정 및 MIS 작업공정 지원

워크플로 구역에서는 후지필름 워크플로 소프트웨어 XMF 6.1 버전, 레이아웃 소프트웨어 PHOENIX, 잉크젯 교정시스템 PRIMOJET이 소개 및 시연됐다. XMF 워크플로는 매엽 및 윤전 오프셋 인쇄 작업에 최적화된 워크플로로서 다양한 인쇄 시스템에 디지털 공정을 지원하고 MIS 작업공정을 지원하는 오픈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시장 선도 위한 끊임없는 노력 필요

후지필름은 IGAS 2015를 통해 하나의 제품이 아닌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인쇄산업의 가치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솔루션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 오프셋 인쇄 시장의 축소에 따른 생존을 위해 디지털 인쇄시장으로의 전환은 필수이며, 지속적인 고객 컨설팅을 통한 통합솔루션 제공은 인쇄시장 선도를 위한 필수요소가 됐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산업의 혁신을 위해 '인쇄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란 생각도 많이 했다.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빠른 변화는 인쇄산업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실하다. 시장 환경에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전시회였다.Ⓞ



IGAS 2015는 'Print + Innovation, 인쇄 기술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 아래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을 목표로 최신 기술과 솔루션, 인쇄 산업의 미래 전망으로 이어질 혁신의 가능성을 글로벌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었다.



후지필름은 IGAS 2015를 통해 하나의 제품이 아닌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인쇄산업의 가치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솔루션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